

❖ 국내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적응실태 ❖

특
집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의 역할 분담과 노력이 요구



윤 여 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탈북자 남한 정착 증가에 따른 이주자로의 성격 변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07년이면 1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하던 북한이탈주민은 10년 뒤인 1999년에 1천명을 넘었고,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1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1990년 이전까지 소수로 입국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적으로 수용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 입국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입국은 특혜를 받는 존재에서 남한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이주해온 이주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향후 매년 1~2천명의 입국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과 지원에 특례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새롭게 이주한 신이주자의 성격이 강조될 것이며, 자발적 사회적응 능력을 갖

〈표 1〉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

구분		'89 까지	'90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5.	계
남	명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3,424
	%	92.9	93.0	85.4	76.8	65.1	74.6	60.8	57.7	50.4	45.1	36.5	33.0	30.5		44.6
여	명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4,263
	%	7.1	7.0	14.6	23.2	34.9	25.4	39.2	42.3	49.6	54.9	63.5	67.0	69.5		55.4
합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00 여명	8,400 여명

추어 남한사회의 건전한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자신들의 적극적인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지역별 거주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입국자 규모가 년 10명 내외로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 최초로 100명을 넘었고, 3년 뒤 2002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2002년 이후 1~2천명 규모로 입국하고 있고, 2006년 입국자는 1,8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2007년이면 입국자 규모가 1만 명을 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5월 현재 8,400여명이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이들 중 조사기관과 통일부 사회적응교육기관(하나원) 생활자를 제외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2.8%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37.2%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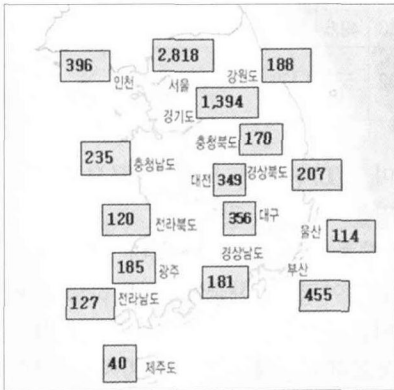
특히 서울 거주자는 전체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등 임대아파트 단지에 밀집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수료 후 사회진출시 세대 단위로 임대아파트를 배정받기 때문에 초기 사회 정착은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주환경은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2〉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명	2,818	455	396	356	185	349	114	1,394	188	170	235	207	181	120	127	40	7,335
(%)	38.4	6.2	5.4	4.9	2.5	4.8	1.6	19.0	2.6	2.3	3.2	2.8	2.5	1.6	1.7	0.5	100.0

2006년 5월 현재(하나원 등 시설보호종인자 제외)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와 조사보고서는 매우 풍부하게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각 분야별 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보고서와 다년간의 추적조사 보고서도 제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와 조사 및 지원사업의 증가로 전문인력의 수요와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연구와 조사 영역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연구학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를 포

괄할 수 있는 종합실태조사는 조사 방법의 장애와 조사규모의 광대함 등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대한 조사는 취업, 교육과 같은 특정영역에 대한 연구나 여성, 청소년 등과 같이 특정 대상 연구, 서울과 경기도처럼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이와 같이 전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대상의 접근성 문제, 재원, 전문조사인력의 부족 등과 같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는 남한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착실태를 조사한 결과로써, 이들의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와 함께 최근에 보

고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주민의 전반적인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적응실태는 경제생활, 사회생활, 신체적·심리적 적응, 청소년 적응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낮은 취업률과 상대적으로 여성의 직장환경 열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 실업현황, 고용형태 등을 통해 이들의 경제생활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는 1997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입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새터민 중 조사에 참여한 1,336명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이들 중 취업자는 466명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이 70.3%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한주민들의 평균이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경제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취업자 466명 중 남성 213명, 여성 253명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59.7%로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직원 114명(24.5%), 임시근로자 130명(27.9%), 일용근로자 222명(47.7%)으로 조사되어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형태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정규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16.2%로 남성 34.3%보다 낮게 나타나고 일용근로자의 여성 비율은 57.7%로 남성 35.7%보다 높다.

이와 같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여성의 입국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낮고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여성의 취업과 직장생활 환경은 남성에 비해서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지표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월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7.7%, 50~100만원 미만이 40.0%로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월평균 생활비는 100만원 미만이 79.9%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의 월 소득자의 분포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재 생활수준에서는 51%만이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중하류층 9.9%, 하류층 57.3%, 극빈자층 27.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인식할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게 나타나고 결국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 더욱 정교한 조사 방법으로 실시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활동 조사결과 이들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은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기 보다는 설문조사와 직접면접조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소 하향 조정하여 밝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에 종사할 경우 이것이 밝혀지면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업현황과 소득수준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해체와 불안정한 결혼생활 비율 높게 나타나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사회교육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번 참여한 사람이 14.6%, 2번 4.9%, 3번 21%, 4번 이상이 25%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교육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혼자의 비율은 남성 42.1%, 여성 42.3%로 거의 같았고, 결혼률(혼인신고하지 않은 결혼 포함)도 남녀 모두 50%대에 머물렀으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 또한 남성 7.3%, 여성 7.6%로 거의 일치하였다.

이혼 또는 사별 경험의 비율을 살펴보면 24.6%가 이혼한 경험이 있고 19.9%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사람들의 비율도 16.6%에 달한다. 이와 같이 가족과 이별을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해체와 불안정한 결혼생활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조사의 경우 '주관적 건강'과 '임상 병리적 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사자인 개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상태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체적 만성질환과 탈북시 당한 심리적 충격 호소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건강 인식을 통해 이들의 건강수준을 알아 보았는데, 이들의 49.0%가 자신의 건강수준을 건강하지 못하거나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건강 수준을 건강 또는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인 25.0%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단지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에 관해 응답한 응답자는 1,198명이고, 지난 1년 동안 앓은 질병을 선택한 수를 합하면 2,378개로, 한 명당 평균 2개 가량의 질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 남한 주민의 경우 개인당 평균 만성질환 수가 1.1개인 것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남한 주민에 비해 2배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중 선택한 질병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위장질환, 관절염, 고혈압·저혈압,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적인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 못지 않게 안정적인 정착에 영향을 주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사는 동안은 물론이고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66.4%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 87.2%가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가족과의 이별,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 탈북 과정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체포·발각의 두려움, 공안의 체포 및 강제송환, 굶어 죽는 사람의 목격, 공개처형 목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가족과의 이별인 것을 볼 때, 가족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 이후 가족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입국 형태가 과거 단독 입국

에서 가족단위의 입국으로 변화하면서 이들의 자녀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급격한 신체적·정서적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됨과 동시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을 위한 학습 보완 및 훈련 프로그램 필요

특히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북한 출신 친구 또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일차적 사회적 지지망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거나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부적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탈북 청소년들은 학습 문제, 친구 문제, 중국 또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을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는데, 탈북 청소년의 58.1%가 학교 공부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선택하였다. 초중고교 학습연령기에 있는 이들의 1차적 고민은 학습과 또래 집단에의 적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

습보완 지원 체계와 동료들과의 문화적응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 이들은 남한 일반 주민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고, 고용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보다 일용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높아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취업률은 자칫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생계급여)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혹은 탈북과정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수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드러내기를 꺼려하지만, 이러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신체적인 불편감

을 호소하는 경우 대부분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유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함께 이들의 건강한 정신생활을 위하여 하나원과 지역사회 정착이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정착을 돕는 정부 · 민간 · 학계의 노력 요구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밖에 없는 삶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이들은 남한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존 주민들과 어울려 일체감을 형성하고 구성원의 역할과 소속감을 갖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융화 프로그램을 각 지역단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제3국으로의 재이주 현상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소규모로 입국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단체, 그리고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입국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와 연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국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가족단위 증가, 여성증가, 해외체류 경험증가, 국제결혼 형식의 입국자 증가와 같이 사회적응 프로그램 설계와 집행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은 미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과 합리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연구자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간의 역할분담과 상호이해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

필자소개

정치학 박사(영남대)

주요논문 및 저서로는 “남북자 현황과 북한내 생활실태”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방과 해결방안” “재외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탈북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남한의 귀순동포에 대한 정책연구” 등 다수